

지하철공사 시작됐는데 주정차 단속 주먹구구

차선 축소로 낮시간대에도 교통혼잡 불보듯 불법 주·정차차량 많아 중앙선 넘다 접촉사고 빈번 시민의식 결여·자치구 소극적 행정도 한몫

22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장동 교차로는 퇴근길 심각한 퇴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동명동 방향으로 가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차량 2대가 불법 주·정차하는 바람에 1·2차로 차량이 뒤엉킨 것이다.

이 곳은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종종 중앙선을 넘어선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도 빈번하다는 게 동네 주민들의 말이다.

운전자 박규민(49·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매일 퇴근 때마다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장동 교차로 일대 도로가 마비된다"면서 "앞으로 필문대로 등 법원 앞 대로 변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공사가 본격화되면 차량이 도심으로 더 몰려들텐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주인 서정훈(58)씨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면 모두 운전자 책임이 된다"면서 "혼잡지역인 만큼 제발 상시 단속을 통해 도로를 넓게 이용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교통 정체도 심각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광주도시철도 2호선 우선 시공 구간인 5공구(필문대로 삼부주유소부터 지산사거리까지), 6공구(필문대로 산수파출소부터 현대자동차 산수지점까지) 공사가 시작된다.

이 구간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여기에 2023년 말까지 진행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더해진다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는 게 주민들의 걱정이다.

실제 지난 21일 공사가 시작된 1단계 4공구인 남구 봉산동 대남대로도 예상대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선대학교에서 백운고개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차선 축소로 출퇴근길은 물론 낮시간대에도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본격화되면 공사구간을 피하기 위한 차량들이 도심 도로 곳곳으로 분산돼 자

칫 도시 전체가 교통 정체를 빚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도 한해 평균 50만 건에 이르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많다.

일부에선 도심 속 부족한 주차공간을 탓 하기도 하지만, 일부 암체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결여와 민원을 의식한 자치구의 소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이 빚어 낸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각 자치단체들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운전자들에게 선진 운전 의식을 갖춰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교통지도 관계자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5곳을 중심으로 교통지도 차량 3대를 동원해 이동 조치 및 단속을 진행중"이라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대상 구간을 파악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예방에 적극 나서겠지만,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품앗이 면접'까지

경찰, 국감 제기 의혹 수사 사무국장 보직 사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의혹을 경찰이 포괄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병원노조 고발로 착수한 채용 비리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병원 고위 간부들이 서로 자녀의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줬다는 '품앗이 면접'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제기된 '아빠 찬

스'와 '삼촌 찬스', '남친 아빠 찬스' 의혹에 이어 새로운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엔해 교육부 장관에게 수사 의뢰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동조합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병원 관계자 다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국감에서 언급된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무국장은 보직을 사퇴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원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곡성공장 교통비 등 통상임금"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교통비와 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유현중)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120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4억8000여 만원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곡성공장 근무자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 등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미지급된 17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추가 노동이나 정해진 노동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해경, 기름 유출하고 도주 60대 예인선 기관사 검거

여수해경은 22일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뒤 도주한 예인선 J호(134t) 기관사 A(69)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여수시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연료유(병커-A) 50 l 를 유출하고도 아무런 방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평택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께 여수시 돌산 계동 인근 어장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펜스형 흡착제 및 방제 기자재 160kg을 사용해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훈련시킨다며 차량에 개 매달고 운전한 50대 실형



○-훈련을 시킨다며 자신이 기르던 개를 운행 중인 차량에 매달고 달리게 한 50대가 철창행.

○-22일 제주지법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17분께 제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에 목줄을 채운 뒤 SUV 차량 뒤쪽에 매달고 4km를 운행했다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

고 법정구속했다는 것. ○-A씨는 개들이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300m 정도를 더 운행해 다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통일쌀 베틀기 광주시농민회와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등 관련 단체들이 22일 광주시 서구 용두동 통일 경작지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이날 수확한 벼는 당초 계획과 달리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목포서 특정 항생제 내성 감염자 집단 발생

시보건소, 요양병원 환자 등 22명 격리 조치

목포에서 특정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군종' 감염자가 집단 발생해 격리 조치됐다.

22일 목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목포 C 요양병원에서 고열이 나는

등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 감염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군종'으로 확인됐다. 감염자는 요양병원 환자 19

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모두 22명이다.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는 이 세균은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가 듣지 않으며 요로감염과 폐렴, 패혈증을 유발한다. 건강한 사람은 감염위험이 적다. 그러나 면역저하자, 만성 폐 질환자, 당뇨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다. 입원환자 중에서

도 인공호흡 기구 사용환자와 장기간 입원환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보건소는 감염자를 자택이나 병원에 격리해 치료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군종은 의료기관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지만, 사망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